6월 한국국적 신규 이민자 355명, 전체 10위

캐나다의 신규 영주권(PR) 취득자 수가 경제 재개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부(IRCC)가 10일 공개한 신규 이민자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완화되기 시작한 지난 6월, 영주권 승인을 받은 신규 이민자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높은 1만92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의 신규 이민자 수인 1만1000명, 4월의 4000명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로,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파악된다.

이러한 수치는 또한 지난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식적인 대유행으로 분류된 이후 집계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만,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환영 받은 3만4000명이 넘는 이민자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6월에 영주권을 취득한 신규 이민자 가운데 인도 국적자가 6760명으로 취득율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중국(2010명), 3위는 필리핀(9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미국(740명), 파키스탄(595명), 브라질(560명), 영국(535명)의 취득율이 높았다.

한국은 나이지리아(530명), 이란(390명)에 이어 355명으로 전체 10위에 올랐다. 이같은 순위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준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캐나다의 이민자 수용 수준은 여름에 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 동안 신규 이민자 수준이 6월과 같은 범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FSWP 프로그램이 포함된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추첨의 재개와 현재 진행 중인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 추첨으로 이들에 대한 수속 과정도 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6월 들어 영어시험이 재오픈되고 영주권 신청 점수 기준이 하향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초청을 받는 예비 영주권자들의 수 역시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이민부는 "6월에 캐나다의 이민 수준이 회복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이민자들이 여름 동안 랜딩 과정을 완료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캐나다의 이민 수준은 향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크레센트 폭포서 일가 3명 급류에 휩쓸려 참변

12일 앨버타주 서부 로키산맥 크레센트 폭포에서 전날 오후 일가족 3명이 폭포수 아래 강변 급류에 휘말려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성인으로 이 중 한 명이 수영 도중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자 다른 2명이 구조하려다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두 명의 시신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수습됐으나 나머지 1명의 시신은 하루 뒤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이 모두 38세로 에드먼튼에 거주하며 다른 1명은 조카로 파키스탄에서 온 25세의 유학생이라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10세와 6세, 3세인 세 아이들만 남아 도움을 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크레센트 폭포는 예전 탄광지에서 관광지로 탈바꿈한 소도시 노르덱 서쪽 빅혼 강의 2단 폭포로 높은 고도와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하다.

레드디어 의사 클리닉에서 피살
가해자는 체포되어 1 급 살인 혐의

레드디어 가장의 월터 레이놀즈 (45)가 10일 자신의 워크인 클리닉에서 끔찍한 공격을 받아 사망 했다.

현장에서 체포 된 54 세의 뎅 마비오르는 1 급 살인, 무기 폭행, 경찰 폭행 혐의를 받고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살된 닥터는 두 딸을 가진 아버지로 평소 달리기를 좋아했고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웃주민들이 화요일 GoFundMe를 통해 목표 2 만 달러를 훨씬 초과 한 조의금을 모았다.

의사의 죽음에 처한 1 급 살인 기소

RCMP는 월요일에 살인이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것으로 설명했지만 공격자가 레이놀즈의 환자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다른 세부 사항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요일 피살된 의사와 살인자가 클리닉을 통해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어떤 관계에 있었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RCMP은 또 화요일에 공격자가 무기를 사용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과저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는고 확인해 주었다.

마비오르는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몸이 좋지 않았고 의사가 필요했지만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마비오르는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중국 우회수출 늘어
캐나다 카놀라 가격 금값처럼 급등

위니펙, 매니토바 / 베이징 (로이터)-캐나다 유채 가격은 오타와와 베이징 사이의 외교 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 업체들이 최고의 유지 종자 구매자 인 중국에 도달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거의 2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2018 년 말 캐나다가 화웨 부회장을 미국 영장으로 구금 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듬해 3 월부터 두 캐나다 수출 업체의 카놀라 대중국 선적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 분쟁은 식물성 기름으로 가공되는 카놀라에 대한 중국의 욕구를 꺽지는 못했다. 중국은 캐나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지만 유럽과 아랍 에미리트에서 카놀라유를 구매했는데 그 일부가 캐나다 카놀라에서 생산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요일 카놀라 선물시장 가격은 2018 년 10 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니다. 카놀라유의 또 다른 이름 인 중국의 유채씨 유 가격도 캐나다 공급 제한으로 인해 반등했습니다. 이에따라 카놀라가격이 금갑처럼 되고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의 대 중국 카놀라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전년 대비 45 % 감소했지만 총 카놀라 수출은 프랑스로의 판매가 3 배로 증가하고 UAE 로의 선적이 2 배가 되면서 9 % 증가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최대 카놀라 생산국이며, 노란 꽃을 피우는 이 식물은 지난해 농민들에게 86억 달러의 수입을 안겨주었다.

한편 중국은 유럽, 러시아, 호주로부터의 카놀라유 수입을 증가 시켰으며 일부는 캐나다 산 카놀라로 만든 오일을 사용했다고 중국에 기반을 둔 또 다른 무역상이 말했다.

YOU & EYE OPTICAL Dr. Martin Kwon
권혁진 안과 가정의
한국어 및 영어 안과진료
눈병 및 응급진료 Walk-In
눈 정기건강검진 및 시력검사 예약
콘택트렌즈, 안경 및 썬글래스 문의
2984 Ellwood Drive SW Edmonton (780) 440 - 2239

기경락 마사지
Young Kim
RMT, Doctor of TCM
모든 의료보험 사용가능
추나요법 20년 경력
예약 : 4038702776
72 Arbour Crest Dr. NW Calgary

STAMPEDE 한인약국
월~금 : 9-6
토 : 10-3
일 : 예약가능
약사 임채현 (Terrie)
403.460.4646
19,3616-52 Ave NW
(코리아나마켓 옆)

MEDICAL
알버타 인술 39년
Dr. Wan Mo Chung
Pleasantview Professional Building
#304, 11044-51 Avenue, Edmonton
TEL : (780) 434-1143
정완모 데디칼 센터

Koryo Optical
고려프라자 안경원
"눈의 소중함 & 패션의 완성"
패키지 $145 | 어린이 패키지 $125
403-228-6878
1324 10 Avenue SW, Calgary

ACUSPORTS
PAIN·REHABILITAION·CLINIC
"YOUR PAIN STOPS HERE"
아큐스포츠
원장 김보묵
•침술요법
•카이로프랙틱
•마사지테러피
Macleod Place Unit 201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Cell. 587-700-9907
Phone. 587-331-922
통증 재활 클리닉
www.acusports.ca
acusports165@gmail.com